

2022

2022.06.03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24주년 개교기념 감사 주간

24th HIS
Anniversary
Thanksgiving
Week

01

HIS Message



02

HIS Spotlight



03

General News



04

MHS News



07

Nurse's Office News



05

Counselor's Office News



08

Creative Corner



06

Library New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HIS Message

제 24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메시지

Message for the 24th School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01

By 최도성 | 한동대학교 총장

Dr. DoSoung Choi ·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The Dreams of Joseph and God's Plan



꿈꾸는 자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 갑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 그녀의 모함으로 옥에 갇힙니다. 10년이 넘는 억울한 옥살이였지만 그 곳에서 투옥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는 30세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은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에 이어 7년 흉년에 들어서고 이웃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 시간을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신세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Joseph, the dreamer, was sold by his own brothers to Midianite merchants, who then sold Joseph in Egypt to Potiphar, Captain of Pharaoh's guard. This happened when he was only 17 years old. The LORD was with Joseph so that he prospered. He became Potiphar's attendant. Trusting Joseph, Potiphar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he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However, he was later put in jail as he was falsely accused by the master's wife who had tried to seduce him. He was in jail for more than 10 years for no reason. But, he met in the jail two of Pharaoh's top officials, and through one of them Joseph met Pharaoh and interpreted his two, unusual dreams. At the age of 30, Joseph was made Prime Minister of Egypt, the second to none but Pharaoh. Joseph ruled Egypt which experienced seven years of abundance, then followed by the seven consecutive years of famine. The famine also

올바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이야기했다가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지요. 성경에서 꿈은 때때로 미래를 보는 통로로 이해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으며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꿈을 비전 또는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see the invisible).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와 장애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한동글로벌학교는 오늘 개교 24주년을 맞습니다. 처음에 한동글로벌학교가 세워질 때 그 누가 오늘의 모습을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한동글로벌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동글로벌학교를 키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결국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한동대 총장입니다. 27년 전에 한동대가 개교할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김영길 초대총장님과 그 동역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는 그 기적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아빠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쁘게 행하였습니다.

reached the land of Canaan where Jacob and his eleven sons lived. Joseph's brothers came to Egypt to buy grain. They stood before Joseph. Later, Joseph revealed himself to his brothers.

This is a story of Joseph's dreams and, at the same time, a story of God's plan. When he was in prison, how would Joseph have felt? How agonizing would it be for someone at such a young age to spend his time in a prison, which is totally unjust and unwarranted? But, Joseph did not resent the situation, did not complain, did not hate anyone. He did not put his anger to anyone. He took it as it was and did his best to behave and to act properly. He was so sincere and faithful, he was put in charge of all those held in the prison. An inmate is in charge of all other prisoners? This was because God was with him. Here is the first lesson: “Do your best wherever you are.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Be a positive influence to everyone near you.”

Joseph was a dreamer. When he was young, he had dreams that his parents and his brothers would bow to him. He was even scolded for telling the dreams to his parents. In the Bible, a dream is, at times, a path to see the future that God is planning. Daniel the prophet, Paul the apostle, and Joseph in this story had this experience. That is why a dream is also called a vision or a prophecy. He or she who sees a God-given dream can see the future that people cannot ordinarily see. This is what I call “See the invisible!” A person who sees the future is not afraid of present problems, obstacles, or hardships. This is because he/she is seeing him/herself in the picture of the future.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s celebrating its 24th anniversary today. When the school was founded in 1998, who would have imagined that HIS would survive this long? Who would have thought that HIS would be as good as it is today? But, many dreamers dared to start the school and they have accomplished an impossible dream. And, this is all that God has planned. God raised HIS. God made HIS prosper. Let's give our thanks to God.

식사(式辭) Ceremonial Message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Dr. Dosoung Choi, HGU President

WHY
not
CHANGE
the
WORLD?

Handong
Global
University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한동글로벌학교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들께 배우고, 정다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아름다운 한동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 세상에 나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크리스천 전문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보내도록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글로 우리의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교수나 교사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으로,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 꿈과 비전을 품는 인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So here comes the second lesson: A person who sees a vision acts in faith, and, as a result, will be witnessing God's miracle. I am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Twenty seven years ago when Handong Global University was founded, things were much worse than HIS. However, those who saw the invisible, such as Charter President the Late Dr. Kim Young-Gil and his fellow faculty, had faith and took the risk. And they experienced many miracles God had provided. And, we are now enjoying the fruit of the miracles. Boys and girls, ladies and gentlemen, I want you to be able to see the God-given vision and accompanying faith.

Finally, a dreamer can realize who he/she is, and why he/she is here. Joseph realized why he became the second highest person in Egypt. This was all within God's plan to save Joseph's father and his brothers and their families. He was happy to be commissioned by God to save the family and to save Egypt.

Thus, the third lesson:

You are all called by God to Handong International



배려하는 세계시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동글로벌학교는 성경에 기초한 지성, 인성,
글로벌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구촌 전역에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양성한다.

위의 한동글로벌학교의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바꿔쓰면 어떨까 합니다. “한동글로벌학교의 사명은
요셉과 같은 글로벌 인재로 키워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개교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후 한동글로벌학교의 환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한동글로벌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졸업생 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HIS가 되길 기도합니다.

School. Why did God call you? The students are called to be here to learn from good teachers, to get along well with good friends, and to know God and to meet Jesus Christ in the beautiful garden of Handong. Teachers and staff are called here to help the students to know God and to meet Jesus. Parents are called here to send your children to Handong garden to become influential Christians, who are honest and faithful, and accountable. All those who are called by God will be given missions: The missions of the disciples of Christ. The missions to change the world by words, speeches, and deeds. Some of the students will be working in businesses, starting one's own business, public officers, professors and teachers, doctors, nurses, lawyers, even clergies and missionaries, and many other professionals.

I want ALL of you to be like Joseph, the dreamer. I will root for you to become honest, faithful leaders with dreams and visions, global citizens who love neighbors and care for others around you.

The mission of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s to nurture students to become Kingdom agents serving in the multicultural contexts of the world by providing them biblically founded academic, character, and global education.

I want to paraphrase and shorten the mission as follows:

The mission of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s to nurture students to become a global citizen like Joseph.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HIS family, on this day of the 24th anniversary of HIS. May God bless this school. May God bless all the students, faculty and staff, and parent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 see a vision of HIS, twenty five years from now. It will be a home for countless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 some of the graduates will become national leaders around the globe, singing and praising our Good God together.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May God bless you and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l Han
g
ner
ith a
stone
of
HIS.

HIS Spotlight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편 119:105

Handong
Global
University



02

Business Director · 행정실장

한병철 행정실장**Mr. Byungchul Han****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1995년 어느 날, 온종일 한동대학교 홍보 테이프를 듣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제게 실력을 갖추어 나중에 한동대학교에 입학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7년 수능 시험 이후 우연히 받게 된 한동대학교 홍보 브로셔를 읽으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1998년, 주로 혼자 지냈던 저는 생활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학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한동대학교에 진학을 결정한 것이 과연 바른 결정이었는지 제 자신과 부르심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복수전공, 전산수업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나와 달리 이중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선배들과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한동대학교 교수님들께 배우며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보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에서

In 1995, my father, who would always listen to promotional tapes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told me that he would like me to go to Handong Global University in the future. After the 1997 CSAT, when I got to see a promotional brochur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I found myself in tears with a passionate heart.

When I came to Handong Global University as a student, I experienced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hile living in the dormitory for the first time, because I mostly spent time alone. Also, the university was going through a hard time internally and externally, which made me doubt myself and my calling of the decision to come to Handong Global University. Nothing was easy; taking major classes in English, double majors, and computer classes. I went through comparing myself with fellow students who could skillfully speak bilingually, and those who chose their next step according to God's calling.

However, I was able to see the bigger picture, thanks to the professors. They would continuously pray for students and serve in the midst of the hard times. When I trusted in God's calling to Handong Global University, He strengthened me in bold faith. I had the

진행하는 한동제자학교(Handong Discipleship School, HDS)의 영적 훈련과, 생활관 룸메이트들과 매일 점호시간 마다 벽등을 켜고 생활관에서 말씀을 나누며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었고, 해병대 입대와 중국어 수업, 영국 봉사활동 연수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하나님은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 직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미국법이라는 전문분야를 통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기는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3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여 기독교변호사로 성장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로스쿨 학생들을 바라보며, 제 자신의 역량을 더 개발하고 성장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교육'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제게 기독교교육을 배우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우연히 만나, 학교 설립을 위해 재정후원을 준비하시는 분, 교사로 섬기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행정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행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 저는 한동글로벌학교 행정실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의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chance to train spirituality through HDS(Handong Discipleship School) and grow in faith with dormitory roommates, by sharing the Word everyday during the roll call time. Also, through the Marine Corps, Chinese classes, England Volunteer Work Training, etc., I could deeply experience God's guidance.

Before graduation, when I was searching for a job, He led me to HILS(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as a staff member. I had the chance to see professors and staff teacher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Law, fulfilling their calling through the specialty of U.S. Law. As I saw law school students growing as Christian lawyers after 3 years of courses and heading to the world, I started dreaming to develop my own competency.

One day, I received advice to learn about Christian Education. And by chance, I got to meet people who were seeking to establish a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ho were ready to donate, and who were preparing to serve as teachers. But I could not meet people who were preparing for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school. So I dreamed of preparing school administrative matters and started to pray. Then, in March 2012, I was called to be the administration office director of HIS. Now, I am daily in progress in my race with God.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저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규정, 중·장기 계획수립, 예산수립 및 결산,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 대관청 업무, 학생식당 관리, 아침 교통지도 등 학교 전반에 걸쳐 업무를 관리하며, 다른 교직원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가 이후, 몇 년 간 학교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외부에서 초청한 자문위원분들을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해 듣고 배우며 한 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 학교 운영에 관한 기반을 다지고, 각 행정업무와 시설관리 등 전 영역에서 성장을 이루기를 더욱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 분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배워서 남 주자”라는 김영길 초대 한동대학교 총장님의 말씀처럼, 한동글로벌학교 행정과 시설관리의 성장과 경험이 다른 기독교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I work as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office and manage school regulations, medium and long-term planning, budget and settlement,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government office work, cafeteria management, morning traffic guidance, etc.

After our school was accredited in 2011, though there were difficult times, we could grow with the help of the advisory committee and reference to other schools. With 10 years of work experience, I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the school management and expect overall growth in administrative work, facility management, etc.

I hope to provide a better education environment for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visiting our school.

Lastly, I pray that the growth of administrations and school management experience of HIS becomes a good model for futur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s Charter President Dr. Kim Young-Gil said, to "Learn to give."

Q.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 24주년 개교기념주간 행사 준비와 진행으로 수고한 교직원 선생님들과 참석한 학생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편입학 모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생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_ 사사기 2장 10절

- 우리 학생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에서 성장하고 준비되도록 기도합니다.

- I pray that the faculty and staff and students who prepared for the 24th HIS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and other events during Spirit Week recover to everyday life.
- I pray for the students who God has prepared for 2022 Fall Transfer Admissions.

After that whole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fathers, another generation grew up, who knew neither the LORD nor what he had done for Israel.

_ Judges 2:10

- I pray that our students are well taught and prepared to be able to tell about God and His works to the next generation.

General New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편 119:105

Handong
Global
University

화재 대피 훈련

Fire Drill

제 24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The 24th School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03

By 김세윤 | 중고등 과학 교사
Mr. Seyoon Kim · MHS Science Teacher

화재 대피 훈련

Fire Drill



Our school conducts an unexpected fire drill once in a semester. When the fire alarm rings, all students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teachers in charge and gather at the school playground. And there students learn how to use the fire extinguisher, the descending life line, etc. Last May 20th (Friday), all students and staff participated in a fire drill. We hope that students enjoy a safe school life by learning through safety education and also by training themselves to act according to the protocol in an emergent situation.



HIS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불시에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운동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소화기 사용방법, 완강기 사용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5월 20일(금)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화재 대피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익히는 훈련을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생활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세계관, 소명을 정립하고,

기르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개발하여,

보내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한다.

Called
We establish our identity, General News
worldview, and calling in Christ,

Cultivated
We develop our capacity to
change the world,

Commissioned
And we serve as God's agents in
His Kingdom.

1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이니
시편 119:105

By 이은규 | 중고등 진로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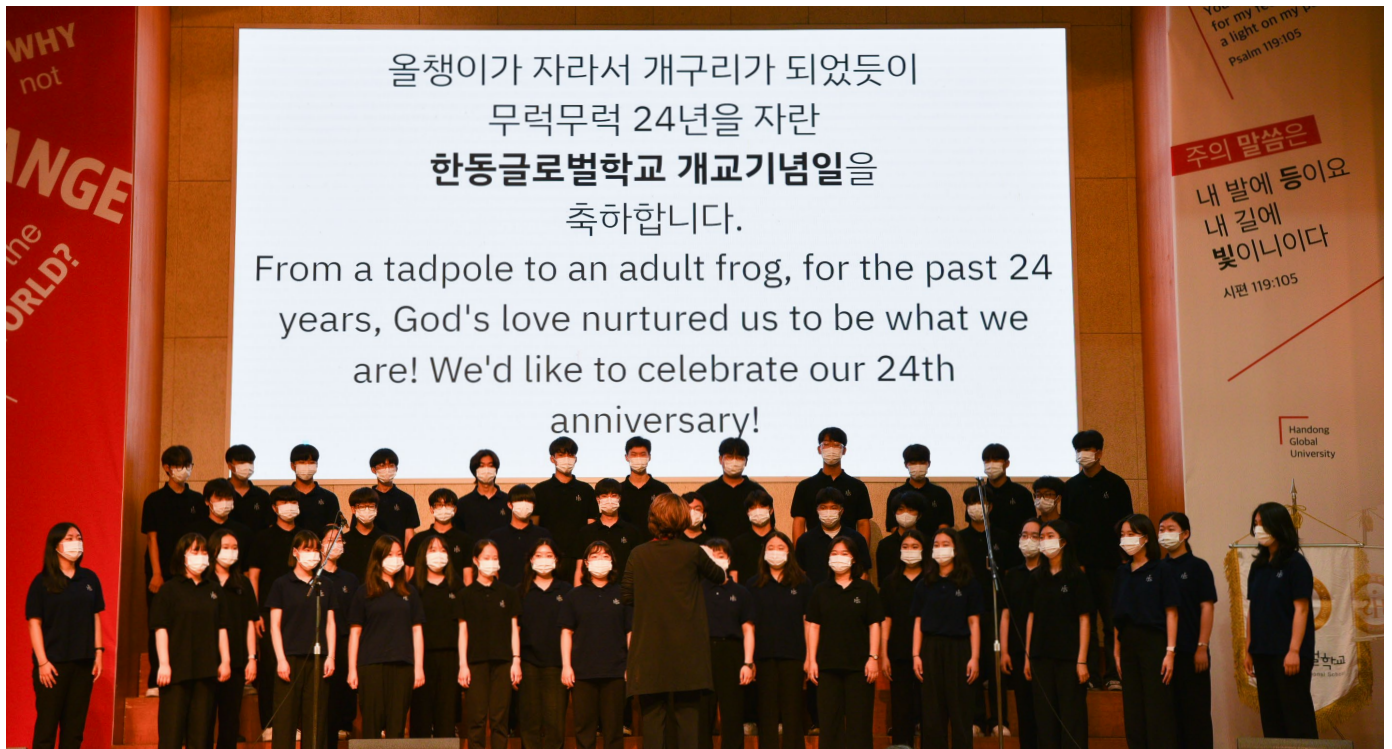
Mr. Eunky Lee · MHS Guidance Team Leader

제 24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The 24th School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5월 23일(월)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전교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함께 24년 전 우리 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개교기념 감사예배에는 20주년 특별감사패 증정(김상섭 직원), 10주년 특별감사패 증정(한병철 행정실장, 조정우 교사)이 있었고, 초등 찬양팀 학생들의 찬양과 11학년 학생들 및 2학년 정지현, 9B 이용희, 12A 백유빈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도성 한동대 총장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참가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On May 23rd (Monday), all students, faculty, staff, and parents held a worship service at Hyoam Chapel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to thank God for building our school 24 years ago and guiding us to this day. In this year's school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those who had served for 20 (Mr. Sang Sup Kim) or 10 years (Mr. Byung Chul Han, Ms. Jung woo Cho) received a special plaque of appreciation respectively. Also the elementary praise team students performed a worship song and grade 11 students, Hannah Jung (gr. 2), Yonghee Lee (9B), and Eubin Baek (12A) presented a performance celebrating our school's anniversary. Dr. DoSung Choi,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gave a special ceremonial message so that all attendees could experience God's grace and vision.



MHS News

국제개발협력 활동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Spirit Week

Spirit Week

친친데이

Chin Chin Day

Blue & Grey Day + Sports Day

Special Activity Day

학교 엽서디자인 공모전

HIS Postcard Design Contest

04

By 최세연 | 중고등 교무 디렉터

Ms. Sei Yeon Choi · MHS Academic Director

국제개발협력 활동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국가 간 무역, 원조 활동을 통한 불평등 문제 체험’을 주제로 한 국제 개발 협력 활동을 교내 채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 어문학부 김준협 교수님과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국제사회 내에서 국가 간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 개발협력 관련 활동 참여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본교 학생 52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나라 별로 팀을 이뤄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다양한 학년이 팀을 이뤄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was held in the school chapel with the topic ‘Experience inequality through trade and aid activities between countries.’ Professor Kim Joon-hyeop(Hando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en university students prepared the program to better experience the severity of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and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52 students signed up, they formed groups by countries. Grade 7-12 students discussed solutions as a team which helped them to improve solving abilities and had a meaningful time to think more about solving problems together.

Spirit Week

우리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과 정신(spirit)을 기억하기 위하여 매년 개교기념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해 개교기념주간인 5/23(월)~5/27(금)에는 개교기념 감사예배(5/23)에 이어 중고등학교에서는 친친 데이(5/24), 블루 & 그레이 데이(5/25), 스포츠 데이(5/26), 특별 활동의 날(5/27)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맘껏 즐긴 학생들,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마련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We observe Spirit Week every year to commemorate the anniversary of our school's opening and to remember the identity and spirit of our school. During this year's Spirit Week, 5/23-5/27, we had the school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5/23) and then the middle and high school had Chin Chin Day (5/24), Blue & Grey Day (5/25), Sports Day (5/26), and Special Activity Day (5/27). We thank faculty and staff for managing all the programs, students for doing their best while enjoying time with their friends, and parents for cheering and preparing delicious snacks.

Chin Chin Day

Blue & Grey Day Sports Day

Special Activity Day



친친데이

Chin Chin Day

By 홍윤 | 학생회장

Yoon Hong · Student President

개교기념주년을 맞이하여 선후배 간의 관계 발전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해 학생회에서 친친데이: “다함께 친친친”을 개최하였습니다.

As an event during the school's Spirit Week, the student council hosted Chin Chin Day: “ChinChinChin Together” to bring all students closer.



학생회는 매학기마다 전교생을 2인 1조로 나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친친(친한 친구 되기)를 진행합니다. 친친은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 2명이 랜덤으로 구성되며 한 학기동안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친친과 함께 테마에 맞는 옷을

For each semester, the student council pairs al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to groups of two, to carry out various missions. A “ChinChin” is a random group of two students with different grades. We then provide many activities to enjoy together.



입고 같이 점심을 먹으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친친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교기념주간동안 친친과 수행할 수 있는 12가지 미션을 주어 가장 많은 미션을 완료한 친친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회가 개최하는 친친데이를 통해 선후배 간의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한동 공동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This year, Chin Chin Day's mission was to match clothes with their Chin Chin, have lunch together, and attend worship together. Also, there were 12 missions with a reward by lot between those who had accomplished the most. Students were able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regardless of grade, and thank God for giving us a community to hold on to.



Blue & Grey Day Sports Day

By Mr. Tim Northe

7B 담임 교사, 중고등 체육, 수학, 사회 교사
7B Homeroom, MHS P.E., Math,
Social Studies Teacher

2003년부터 한동글로벌학교는 매년 5월 개교기념 감사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색상인 블루와 그레이로 팀을 나눈 후, 선발된 1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 팀의 리더가 됩니다. 그 후 중고등 전체 학생들을 블루와 그레이 팀으로 각각 배정합니다. 따라서 팀 배정은 리더들의 선택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에 치를 다양한 경기를 학생이 신청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열기를 돋우기 위해 스포츠 데이에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승부욕을 표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팀은 치어리딩 공연을 준비 하여 선보입니다. 익숙한 노래들의 가사를 바꾸어 각 팀을 응원합니다. 블루앤그레이 데이에 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 전, 학생들은 학교 곳곳을 블루와 그레이로 꾸며 놓고, 이 날은 자신의 팀 색상의 옷을 입고 등교합니다. 마치면,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서로에게 도전합니다. 온 학생들이 응원하며 웃고 춤 추며 소리를 높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응원하며, 후배들이 선배들을 응원하며

May 23-27 is our annual Spirit Week when we celebrate HIS's anniversary and we have been doing this since 2003. Our school colors are Blue, Grey and white so we separate the school into two teams, Grey team and Blue team. One 12th grade boy and one 12th grade girl are chosen as captains for each team. They then get together and select all the students into either Blue or Grey teams. These teams change every year depending on which team a student is selected into. The students then are given a chance to sign up for different sports that will be played on sports day. To make things a little more exciting the weeks before students use friendly banter to decide which team is the best team and will win on Sports Day. They also prepare cheers for their teams. They take well known songs and change the lyrics to support their team. These cheers are done on Blue and Grey Day. On Blue and Grey Day the school is decorated in Blue and Grey and all the students wear their team's color. The students then meet on the court to challenge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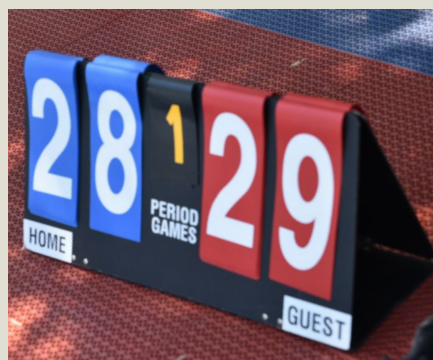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신의 팀을 응원하며 열기를 띠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평소 수업 시간에 아주 조용하던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 앞에 서서 보여주는 활기 차고 당당한 모습에 놀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블루앤그레이 데이는 스포츠 데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호적인 응원은 경쟁으로 발전하여 스포츠 데이에 다양한 경기 종목들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스포츠 데이는 물놀이로 마쳤습니다. 서로에게 차가운 물을 쏟고 부으며, 학생들은 그 동안 힘들었던 날들을 뜨거운 햇빛 속으로 날려 버리는 시원한 시간을 갖습니다. 스포츠 데이에서 혹시라도 느꼈을 실망이 있었다면 물놀이와 웃음으로 털어버립니다. 모든 경기를 마치면, 지치고, 덥고, 피부가 탄 학생들이 함께 앉아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하신 맛있는 치킨과 음료를 먹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It is a noisy time of cheering, laughing and dancing. It is a time where older students cheer for younger students and younger students cheer for the older students and everybody plays their part and is cheered on for doing so. Sometimes it is a surprise to see how students who seem so quiet and shy in class suddenly come alive and step out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with so much boldness.

Blue and Grey sets the mood for Sports Day. The friendly banter turns into competition as students do their best in a variety of sports to prove that their color deserves to be called Sports Day's best team. Sports day ended with an all students water fight. The stress of the day and the heat are chased away by throwing buckets of cold water on each other. The water and the laughter washes away whatever disappointments might be felt from Sports Day. When finally the day is done and many sore, wet, tired, sunburned bodies sit together to enjoy the chicken and drink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교사로서 여러 학생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학생들과 한 층 더 가까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혹은 추억이 우리 학교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잠언 17:22 에서는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웃고 응원하며 열심히 경쟁하는 것을 볼 때, 잠시라도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6월에 접어들며, 이제 학생들은 다시 학업에 열중하여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동글로벌학교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주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올해는 블루 팀이 최고입니다. 다음 해에는 그레이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세요."

prepared by the parents, it is nice to see so many smiles.

As a teacher, when I reflect on the week, I feel that I have learned something new about so many students and grown a little closer to more students because we have started to share common stories. It is these stories or memories that build our school community. Proverbs 17:22 says that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When I see our students laughing together, cheering together, and competing together, I see healing even if just for a moment. Now that June has come, it is time to get serious about our studies again and focus on work. But for a moment it was nice to just enjoy being together as HIS community and enjoy the people that God has put in our lives for this period of time and be thankful for the many blessings we have.

To the students:" This year Blue is the best. Better luck next year Grey. Now study hard."



Special Activity Day

By 서지훈 | 중고등 학생디렉터

Ms. Ji Hoon Suh · MHS Student Life Director



개교기념주간 마지막 날에 진행된 Special Activity Day는 공동체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등교 시간을 오후 2시로 정해 전날 Sports Day에서 쌓인 피로를 충분히 풀었습니다. 등교 후 홀룸별로 반장을 중심으로

Special Activity Day was held on the last day of the school's Spirit Week, focusing on the meaning of community. First, MHS students were allowed to come to school by 2:00 PM so that they could fully relieve the fatigue accumulated from the Sports Day they had the day before. After students

미리 계획한 랜덤, 마피아, 훈민정음 윷놀이, 런닝맨, 경찰과 도둑, 라이어 등 여러 종류의 게임을 진행하였고, 홈룸별 저녁 식사도 함께 즐겼습니다.

이후, 중고등 학생들은 다함께 운동장에 모여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고 이후 20개의 팀으로 나뉘어 1시간 가량 학교 캠퍼스 주변을 한 바퀴

came to school, they enjoyed activities such as the Random game, the Mafia game, Hunminjeongeum Yutnori, Running Man, Police and Thieves, Liar, etc. that they prepared before under the leadership of their homeroom captains. They also enjoyed the homeroom dinner together.

Then, students were divided into 20 teams and walked



도는 '땅 밟기' 저녁 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산행이 끝나는 지점부터 학생들은 교사들의 눈을 피해 학교 운동장에 무사히 도착해야 하고 교사들은 한동대학교 캠퍼스 여기 저기에서 학생들을 잡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나는 술래잡기도 진행하였습니다.

around the campus for 1 hour after recreation time. From the end of the walk, teachers and students played tag all over the Handong Global University campu in which students had to get to the school ground safely, avoiding the eyes of teachers.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간식과 기도로 섬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e praise and thank God for allowing us to celebrate our school's anniversary through various activities as a community, with the students and faculty and staff altogether. And, we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parents for supporting us with prayers and snacks during the events.





By 윤영실 | 중고등 학생부장 / 미술 교사

Ms. Young Shil Yun · MHS Student Life Team Leader / Art Teacher

학교 엽서 디자인 공모전

HIS Postcard Design Contest

매년 진행하는 좋은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는 'HIS에 대한 우리 생각'을 주제로 홍보 엽서 디자인 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118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HIS의 사명,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다양한 문화 속 조화, 맛있는 급식,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장점과 특징들을 작은 엽서에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 대회에 출품된 작품 중 일부 작품은 학교 홍보와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위해 엽서 세트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As part of our school's annual Making a Good School Culture Project, we held a promotional postcard design contest with the theme of 'Our Thoughts on HIS' this year.

This year, 118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ontest. Students drew their thoughts on our community such as Jesus as the head, the mission of HIS, the beautiful nature, creative activities, harmony within various cultures, delicious meals, and awesome teachers and friends.

Some of the artwork of the participants will be made as a postcard set for fundraising for school promotions and volunteer work.



금상 · 1st Place

은상 · 2nd Place

박주형 · Daniel Juhyung Park | 11A



서예준 · Yejun Seo | 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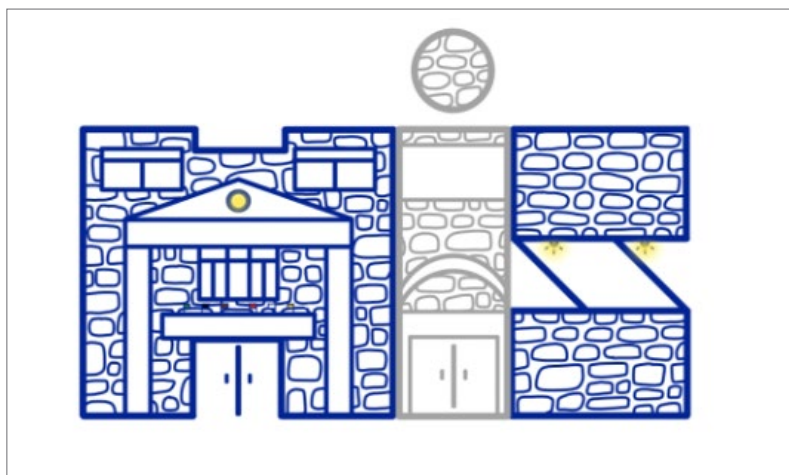
동상 · 3rd Place



유승주 · Seungju Yoo | 8B



이나경 · Lucy Nakyung Lee | 10C



허보라 · Borah Hur | 11A

Counselor's Office News

By 장정은 | 상담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TCI 검사를 신청하신 학부모님의
자녀 대상 개별 검사 해석 상담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진행합니다.

The individual interpretation counseling
for children of parents who applied for the
TCI has been extended until June 30.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실에서는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멘티 학생은 상담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멘토 학생은 봉사활동 시간을 받게 됩니다.

For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studying, HIS Counselor's
Office plans to operate a mentor-mentee system. Mentee
students will be selected through counseling, and
mentor students will receive community service hours.



상담실 소식

Counselor's Office News

05

Library News

도서부 '코코보코' 소개
Introducing 'cocoboco' Book Club

06

By 이희정 | 도서관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도서부 '코코보코' 소개

Introducing the 'Cocoboco' Book Club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서부
코코보코 2기 학생들입니다.

지난해 처음 출범한 도서부 이름은 '코코보코 Cocoboco-C'C'C'인데요. 이 코코보코란 이름은 '진정한 장소는 지도에 없다'라는 뜻의 허먼멜빌의 소설 모비딕과 우리 학교의 사명인 'Called-Cultivated-Commissioned'의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부 코코보코는 리딩, 홍보, 서평, 토론 팀으로 각자의 쓰임에 맞게 구성되었는데요. 우리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고전 3:9)들입니다. 15명의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도서부원들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들 한 조각의 발견이 기쁨이 되고 환하게 번지기를 소망합니다.

Hello, we are the second cohort
of a book club 'Cocoboco.'

When we started this last year, our club's name was '코코보코 cocoboco-C'C'C'. It means 'a true place that is not marked on the map,' inspired by the novel Moby-Dick by Herman Melville. We then added our school's mission 'Called-Cultivated-Commissioned.' Our book club 'Cocoboco' has reading, promotion, book review, and debate teams; which function according to each purpose. We can all be a part of something greater than us. As apostle Paul said, we are "God's fellow workers"(1 Cor 3:9). We greet you with a video of our book club, consisting of 15 MS student members. We hope that the discovery of each one of us will bring joy and spread light.

도서부 활동 내용

- **서가 관리** : 명예 사서로서 담당 서가 정리 및 관리 (사서 선생님 부재 시 대출 반납 담당)
- **리딩 및 홍보** : 책 소개, 북큐레이터, 도서관 이벤트 기획 홍보 (미디어, 교내방송)
- **토론** : 도서 선정, 토론 내용 후기 작성
- **서평러** : 북리뷰, HIS Connection 기사문 쓰기

What We Do

- **Bookshelf management** : Help students return and check out books as honorary librarians when the librarian is absent
- **Reading and Promotion** : Introduce and curate books, and plan and promote library events (via media and school broadcasting)
- **Debate** : Pick books and write debate reviews
- **Book Review** : Write articles for HIS Connection.



Nurse's Office News



구강 보건의 날
Oral Health Day

07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6월 9일은 구강 보건의 날

Jun 9th, Oral Health Day

6월 9일은 1946년 대한치과협회에서 정한 구강 보건의 날로서, 어린이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구치)의 '구'를 숫자화하여 조합한 것으로 '6세 구치를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Jun 9th is The Oral Health Day set by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in 1946. It was named by combining '6' from the age of 6, when children's first permanent molars appear, and 'gu' from molars (posterior teeth that is "Gu Chee" in Korean) and means, "Let's protect the molars of 6 year-olds."

코로나로 학교에서 여전히 칫솔질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올바른 관리로 치아 건강을 지킵시다.

Although brushing is still not free at school due to COVID-19, let's keep teeth healthy with proper care at home.

바른 칫솔질

The right way to brush your teeth



- ① 잇몸과 치아 사이 45° 각도로 윗니는 쓸어내리듯, 아랫니는 쓸어올리듯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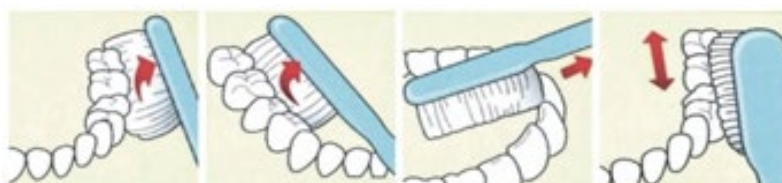
At 45° between gums and teeth, wipe the upper teeth in a sweeping motion downwards, and the lower teeth upwards.

- ② 앞니의 안쪽 부분은 칫솔의 손잡이를 직각으로 해서 각 부분 20회 이상 반복하여 닦는다.

Wipe the inner part of the incisors with the handle of the toothbrush at a right angle and repeat each part more than 20 times.

- ③ 혀와 입천장도 닦아줘야 구취가 제거된다.

The tongue and palate should also be wiped to remove bad breath.



어금니의 바깥쪽
The outer part
of the molars

어금니의 안쪽
The inner part
of the molars

앞니의 앞쪽
The front part
of the incisors

어금니의 씹는 면쪽
The chewing part
of the molars

올바른 칫솔 선택과 보관법

How to choose and store the right toothbrush

- ❶ 칫솔의 길이 : 어금니 2개 덮는 정도
Length of toothbrush : Able to cover 2 back teeth
- ❷ 칫솔모 : 부드럽고 끝이 둥근 나일론 제품
Brush hair : Nylon products with soft and rounded ends
- ❸ 교환시기 : 3~4개월
Exchanging time : 3 ~ 4 months
- ❹ 보관 :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
Length of toothbrush : Able to cover 2 back teeth
- ❺ 소독 :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 섞은 물에 10분 담가 둔 후 완전 건조시키기
Disinfection : Soak in vinegar or baking soda mixed water for 10 minutes and dry thoroughly

정기적인 치과검진

Regular dental check-ups

- ❶ 6개월마다 검진
Check-up every 6 months
 - ❷ 스케일링 (만19세이상 연 1회 보험 적용)
Scaling (Insurance coverage once a year for over 19 years old)
 - ❸ 치아홈메우기(실란트)로 충치 예방
Tooth home filling (sealant) to prevent tooth decay
- * 18세 이하 제1, 2 대구치 총 8개 치아 보험 적용
Under 18 years old, the 1st, 2nd back tooth Insurance coverage for 8 teeth



치아홈메우기 전
Before tooth filling



치아홈메우기 후
After tooth filling

구강건강법

Oral Health

- 이 닦기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Wash your hands before you brush your teeth.
- 이 뿐만 아니라 혀바닥도 반드시 닦습니다.
Make sure you also brush your tongue.
-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은 충치와 입냄새를 막아줍니다.
Toothpaste with fluoride prevents cavities and bad breath.
- 칫솔, 치약, 컵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땐 거리를 둡니다.
Keep a distance between your toothbrush, the toothpaste, and the cup.
- 입 속 건강에 해가 되는 식품을 줄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refrain from having food that causes cavities.

Creative Corner



세바오(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 분)
Sebao(5 Mins that Change the World)

08

By **곽인옥 | 10학년 국어교사**

Ms. In Ok Kwak · Grade 10 Korean Teacher

세바오(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 분)

Sebao(5 Mins that Change the World)

‘세바오(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 분)’는 5~10분간 청중 앞에서 재미, 정보, 감동을 주는 말하기를 하는 10학년 국어 수행평가입니다. 학생들은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만난 괴한과 도움의 손길, 캄보디아에서 깨달은 좁은 길, 일본 교토에서 한동까지의 인생길 등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그 중 두 명이 나눈 발표 대본입니다.

‘Sebao(5 Mins that Change the World)’ is an assignment for Grade 10 students taking Korean Language Arts, in which they present a 5-10 min speech in front of an audience. Students had a meaningful time sharing experiences, such as an encounter with dangerous people and someone’s help in Lesotho, Africa, finding a narrow path in Cambodia, the path of life from Kyoto, Japan to Handong, etc. The following are the stories of two students.

모래에 빠진 자동차와 삶

Life and Our Car Stuck in the Sand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_ 이사야 41 : 10

세바오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던 주말, 모처럼 우리 가족은 맛있게 저녁을 먹고 해수욕장에 바다를 보러 갔는데요, 모래사장에 차박을 하는 차들이 많아 우리 차도 아무런 생각없이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바다와 파도 소리를 즐기다가 집에 가려고 차를 돌리는 순간! 바퀴가 모래에 빠져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가 앞뒤로 차를 힘껏 밀어보고 아빠는 차 안에서 시동을 걸면서 모래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바퀴는 모래 속으로 더 깊이 빠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과정에서 모래 바람을 다 맞고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죠.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어지자 아빠가 결국에는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엄마는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y **송예슬 | 10A** · Rachel Yeseul Song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_ Isaiah 41 : 10

While I was thinking about the topic of Sebao during the weekend, our family had a delicious dinner and went to the beach. There were a lot of cars camping on the sand beach, and we joined in. Just when we were heading back home after enjoying the beach! The car wheels got stuck in the sand beach. So mom and I pushed as hard as we could while dad started the engine inside the car. But the more we tried, the deeper our car got stuck in the sand.

Our family got covered with sand during this exhausting process. As the last resort, dad called the insurance company. That's when mom started nagging how we shouldn't have come in the first place. She continued to complain on how we could have prevented this situation. It took about 20

보험회사 차는 초곡에서 오는 터라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차가 도착했고 역시 전문가답게 우리 차는 모래에서 쑥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정말 구원자가 나타난 것 같았죠.

이 장난 같아보이고 우스운 사건을 통해 저는 저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차가 모래사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풀릴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합니다. 마치 아빠가 보험회사 차를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보험회사 차처럼 우리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무조건 있습니다. 굳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심적인 문제도.

두 번째로 도움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고통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뜻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렵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우리 주변을 잘 살펴 문제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인 것처럼 우리도 만약 이웃이 힘들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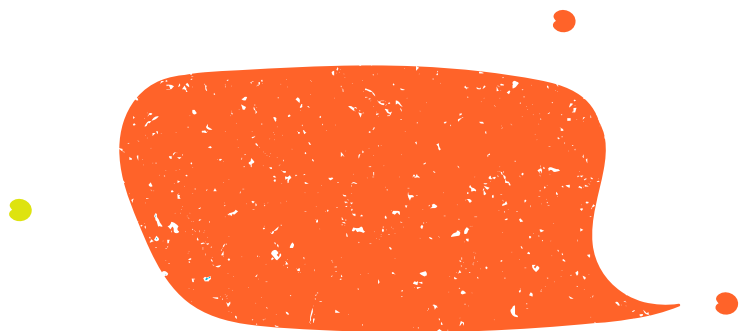
minutes for the insurance company to arrive from Chogok. And finally, after they came, our car came out of the sand by the professionals. They were like saviors to us.

Through this comical experience, I could apply some lessons to my life.

First, some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my own strength. As our car couldn't find its way out of the sand no matter how hard we tried together, some matters were impossible for us to solve by ourselves. These are times when we should ask God for help. Like when my dad called the car insurance company. This is when the insurance company comes to us like the Lord, our Savior. Whether it be visible problems or internal issues.

Second, we should continue to wait though it seems as if we're helpless. You may face situations where it feels like there is no answer from God although you asked for help. That time of waiting may feel like eternity. But remember that God does not neglect us during the pain. He always hears our prayers. We must always remember this truth. Also that though it may not be our will, but that He has planned ahead of us according to His good will. So we must learn to have faith and wait though we face difficult situations.

Third, we should be able to help those around us who are in pain. Just as God is our strength when we face problems in our lives, we should become a community and be able to help each other. I believe this is the attitude that God wants us to have in our daily lives.



마지막으로, 도움을 기다릴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도움을 위하여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들은 그 문제가 너무 크거나 복잡하여 혼자서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사장에 빠졌던 토요일, 육체적으로 차를 미느라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서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Finally, there may be people who make us discouraged. But we shouldn't be intimidated by these remarks. We should be able to keep our minds set positively and wait for God's help.

Multiple problems are bound to come while we live. Sometimes it is overwhelming to bear our hardships when the problem is too big or complex. That's when we ought to ask for God's help by acknowledging our limits. I hope that we are able to apply these into our lives when we face problems in the future. It was a tiring Saturday; getting stuck in the sand and pushing as hard as I could, but I guess it wasn't that bad to learn a valuable lesson. Thank you.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Surviving in a New Environment

By 김신후 | 10B • Shinhoo Kim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라는 제목으로 세바오를 할 10B 김신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은 어딘가에 적응을 하기 위해 애를 쓴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정말 여러 곳에 적응을 하기 위해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먼저 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정말 오래 살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6개월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의 공부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간증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때 미국으로 이사 가고, 거기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딱히 적응하는 것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는데요, 제가 2017년 8월, 학년으로 따지면 5학년 2학기 때 한국으로 다시 이사 오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적응에 관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自然淘汰 (자연도태)라는 것입니다. 자연도태란, 자연계에서 그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저는 이 한국의 생활 조건에 적응하지 못해서 저절로 사라질 뻔했네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Hello everyone! I am Shinhoo Kim and will speak with the title: 'Surviving in a New Environment.' Before I start, quick question, did you ever try to fit in a new place? In my case, I had some time trying to fit in various places, which was extremely difficult.

As some of you know, I lived in the U.S. for a long time. I was born in Korea and headed to the States after 6 months of birth. I will get into it later as a testimony, but the reason we left was my dad's studies. So I moved to the U.S. when I was six months old and lived there for ten years. It wasn't too difficult to fit in because I lived there from a young age. Then I came back to Korea in August, 2017, when I was in the second semester of Grade 5. That was when I had a hard time getting used to school life.

自然淘汰(Natural Selection) is an idiom about adjusting. It means that creatures who adjust to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natural world survive and those who can't naturally vanish. So that means, I almost vanished in Korean society!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문화인데요, 그중에서 학교가 가장 신기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실내화입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그냥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내화로 갈아신은 다음에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기했던 것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다녀보긴 했지만 저는 교과서를 사용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나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부 방식과 교육을 따라잡는데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원'이라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미국에서는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동네 형이랑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놀다가, 공부는 그냥 집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학교에서 가끔 내주는 숙제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애들은 학교를 마쳤는데, 또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또 몇 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자 거의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한국 학생들처럼 바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저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차근차근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고,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는 마냥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거의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좋았는데, 미국에서는 차를 타지 않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갈 때도 엄마가 태워주시거나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학교도 집 바로 앞에 있고 내 마음대로 편의점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어린애들도 밖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밖을 돌아다니면 위험하기도 했고 밤 9시만 되도 집으로 돌아가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보다 한국의 문화가 더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정말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급식인데요, 저는 미국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자주

The reason I couldn't fit in Korea was mostly the cultural difference, especially the school culture. What was most shocking to me was indoor shoes. It was extremely shocking to me that in Korean schools, I had to wear indoor shoes to go inside.

The next point was the textbooks. I had never used textbooks in the U.S. though I went to Elementary School. Usually, teachers would hand out class materials as paper or different methods. So it took me a lot of effort to adjust and study based o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lso the concept of 'Hakwon' was another shocking point. When I was in the States, all I would do was play soccer with my neighbor after school, or read books or do homework. But it was horrifying to me that my classmates in Korea would go to their Hakwon and study for extra hours right after studying in school. So...did I start to study like them in a Hakwon? No, I didn't. Because I think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a new environment. During my struggle to fit into Korean culture, my friends helped a lot. Through my friends, I could naturally learn Korean culture and adjust day by day.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 wasn't so bad, at all. I liked that in Korea, you can walk almost anywhere, whereas in the U.S., there are very few places you can go to without a car. So when I went to school, my mom would pick me up or ride the yellow school bus. But in Korea, school was near my house and I could go to a convenience store or play with friends whenever I wanted to, which was satisfying. It was also cool how kids could hang out outside until late at night. In the States, it was dangerous at night and I had to go home before 9pm. So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better in Korean culture than in the U.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liked was lunch. In the U.S., my mom fixed me a lunch box for school. I could get a meal from the cafeteria if I paid for two days weekly, but I loved how lunch time in Korea was free and delicious.

먹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학교에 돈을 내면 먹을 수 있던 급식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급식이 공짜인데다가 정말 맛있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 안에서도 여러 군데 이사를 다녔는데요, 먼저 용인에서 5학년 2학기를 끝내고 6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했던 것이죠. 뿐만아니라 서울에서 6학년을 끝내고 나서 다시 용인으로 이사 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중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이사를 해서 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번의 이사를 통해 적응 잘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낯선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기 때문에 멘탈(정신)을 잘 잡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 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MBTI의 첫 영역이 I인 만큼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알고, 평소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워나가서 어디든지 완벽히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I also moved to various places within Korea. After the second semester of Grade 5 in Yongin, I moved to Seoul at Grade 6. So I had to start all over again, adjusting to a new environment. Later, I had to go back to Yongin and start middle school without a single acquaintance. After graduating middle school, we moved once again and came to Ulsan. And then I came to Handong.

Through this process of moving, I learned how to adjust in various situations. So now I want to give you some advice on how to fit in a new environment. First, you have to control yourself well. When you enter a new environment, there are a lot of new and unfamiliar things, so you have to learn to keep your mental strength well and control yourself.

Second, you should develop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normally. My MBTI type starts with a passive 'I,' but to face new events, I am working on building confidence.

To wrap up, I hope that you learn how to control yourself to adjust to new environments, and train yourself to build self-esteem in your everyday lives, to be able to enjoy your lives in new places.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